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18년 7월 8일 (둘째 주일)

성경본문 : 행19장 33-41절

설교제목 : “그 모임을 흠어지게 하니라”

교회의 존재목적은 강조했듯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서, 지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제자를 삼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전제는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고백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험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엿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연극장에 모인 군중들 가운데는 유대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성을 잃은 광기어린 군중들을 보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제국 내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에베소 연극장에 모인 광기어린 무리들이 언제 어느 순간에 돌변해서 반유대적인 감정을 드러낼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달변가인 알렉산더를 무리 앞에 내세워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경위를 설명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난 군중들은 알렉산더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아보고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크다 아데미여’를 무려 두 시간 동안이나,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33-34절) 그런데 이러한 광기어린 외침은 서기장의 출현으로 진정되어집니다. 서기장은 에베소 도시의 행정관입니다. 그의 임무 중에 하나가 집회 관장을 책임지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서기장이 하는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에베소 도시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총독이나 로마 당국에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서기장은 에베소에서 발생하는 불법집회나 무질서한 폭동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35절) 서기장은 흥분한 무리들을 진정시키고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를 주지시킵니다.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이란,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을 가리키는데, 에베소 사람들은 그 운석을 제우스가 내려준 신이라고 여기고, 에베소 신전 안에 모셔두고 섬겼습니다. 서기장은 가이오와 아리스다가 죄 없이 잡혀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기장은 가이오와 아리스다가 신전의 기물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아데미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다고 명백히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마치 범죄자처럼 붙잡아 야외 연극장으로 끌고 왔으니 이것은 불법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장은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의 동업자들이 개인적으로 고소할 일이 있으면 지방 총독이 여는 재판에 소송을 신청하라고 하고, 만일 소송이 공적인 것이라면, 정식으로 민회에 안전을 등록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회는 한 달에 3번씩 열리는 시의회인데, 에베소 성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행정적으로 사법적으로 논의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서기장은 아무런 이유없이 발생한 이러한 소요사태로 말미암아 자신이 당국으로부터 책임 추궁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집회는 총독에게 보고할 수도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37-40절) 결국 서기장의 설득력 있는 논리로, 그 불법 모임을 흠어지게 되었습니다.(41절) 에베소 연극장의 모임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서기장을 통해서 그 모임을 흠어지게 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연극장에 모인 폭도들의 위험을 제거한 사람은 에베소 서기장입니다. 그러나 그 서기관을 통해 그 위협적인 모임을 흠어지도록 섭리하신 분은 보이지 않지만,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서기장은 여호와 하나

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배후에서 일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에베소 연극장에서 성난 군중들에게 처참하게 죽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일하신 역사였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와 상황에 상관없이, 철저하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발생한 일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일하신다는 것**은 우리 등 뒤에서 도우신다는 의미도 되지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도우신다는 것을 단지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받아들이게 되면, 고난 중에서 도우심을 받지 못한 성도들의 삶을 해석하기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총신대에서 은퇴한 황성철 교수가 ‘**개혁주의적 신앙은 칼빈주의 신앙인데 이것은 하나님 주권사상이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워필드 박사가 ‘칼빈주의자는 모든 현상 배후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이 모든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며 기도하는 태도로 자기 생애를 살아가며, 구원 문제에 있어서 자기의존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다’라고 한 말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주권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자가 찬송가 384장의 찬양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84장 1절을 보면,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훈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는 고백은 ‘무슨 일을 만나도,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다, 잘 되어질 것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무슨 일을 경험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나에게 허락된 가장 좋은 것입니다’란 고백인 것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 1) 광기어린 군중을 진정시킨 서기장은 어떤 인물입니까?
- 2)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일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말씀 나누며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여러분 각자 살아오면서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손길을 경험해 본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경험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